

# 중국[심천] 콘텐츠산업 위클리 글로벌

2019. 12. 9.(월) / 한국콘텐츠진흥원 심천비즈니스센터

## □ '지적재산권 강화에 관한 3대 의견'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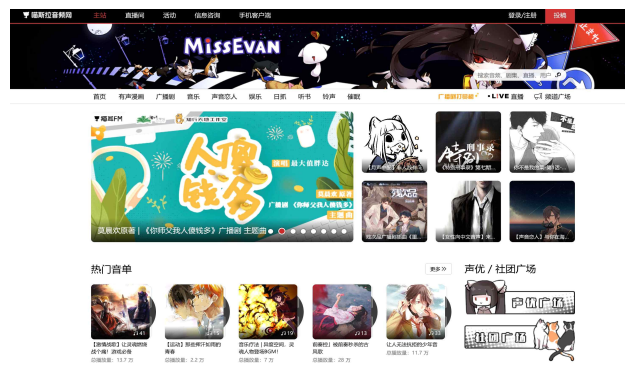
- 중국은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3대 의견'을 발간하여 중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추진하기로 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3대 의견으로 '더욱 엄격한 집행 및 관리, 지적재산권 침해 배상 기준 확립, 권익 보호 및 유지'를 발표하였음. 중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지적재산권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2018년 중국의 지적재산권 만족도는 76.88점으로 사상 최고점을 기록하였음.
-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의 '2019세계혁신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국가 순위 14위로 상승하여 중위소득 경제권에서 1위를 차지함. 세계은행의 '2020 비즈니스 환경보고서' 내 중국 비즈니스 환경은 전 세계 순위 중 31위를 기록함. 하지만 국가 지적재산권국은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배상 기준은 아직도 낮은 편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한 현황이며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정책 가이드 확립, 지적재산권 보호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언급함.
-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침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유지 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임. 알리바바(阿里巴巴) 그룹 부회장은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은 정부와 전자상거래 플랫폼 등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지적재산권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재 전국에 25개의 지적재산권 보호 센터를 설립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국내외 및 해외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 조정 해결 시스템 구축 및 지적재산권 협력을 위해 중국은 세계지적재산권 관련 기구에 가입함. 이를 통해 전 세계 6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조직과 다양한 협력 체결 및 50개의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 회원국들과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함.

## □ 비리비리만화(哔哩哔哩漫画) 왕이만화(网易漫画) 인수

- 왕이만화는 비리비리만화가 왕이만화를 인수함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 12시 이후 플랫폼 운영을 영구 정지할 예정이라고 공지함. 비리비리와 왕이는 APP/인터넷사이트 내 만화관련 및 그에 관한 권익, 인터넷 만화 자산 인수 관련 계약을 체결함. 현재 비리비리만화는 왕이만화 작품을 비리비리만화 플랫폼 내에 업로드 하는 작업을 진행 중임.
- 비리비리만화는 2019년 1분기부터 묘이(猫耳)만화의 모바일 MAU 수치를 비리비리만화 MAU 재무보고 통계에 포함시켜 올해 3분기에는 비리비리만화와 묘이의 MAU 통계를 합쳐 610만 명의MAU를 기록하였음. 또한 비리비리만화가 왕이만화 인수를 완료하게 되면 비리비리의 유저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발표된 비리비리의 3분기 실적에 대해 비리비리가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와 '효율적인 유저 유치 전략' 덕분이라고 언급하였음. 또한 3분기의 비리비리MAU는 전 분기보다 1,750만 명 증가하여 3,760만 명을 기록하였음. 이는 비리비리 역사상 가장 많은 증가치를 기록한 수치이며 평균 DAU도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하여 3,760만 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아이루이컨설팅(艾瑞)에 의하면 현재 중국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시장의 소비자 62%가 90-00년대 생으로 평균나이 21.5세임. 또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광고의 경우 텐센트 동영상(腾讯视频) 광고는 45초, 유쿠(优酷)는 70초, 아이치이(爱奇艺)는 90초에 이름. 텐센트 동영상, 아이치이, 유쿠, 망고TV(芒果TV), 소후 동영상(搜狐视频), 텐센트 스포츠 등 9대 동영상 플랫폼의 회원 요금, 회원 서비스 방면 조사 결과, 동영상 플랫폼 회원의 83.3%가 광고를 스킵하기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음.



왕이만화 플랫폼 운영을 영구 정지 공지



묘이만화 플랫폼

\*이미지 출처 : 바이두(百度)

● 해외 비즈니스센터 및 마케터 담당자 연락처 ●

- 미국 비즈니스센터(LA) 김철민 센터장 : +1-323-935-2070 / cmkim@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북경) 김상현 센터장 : +86-10-6501-9971 / willbe@kocca.kr
- 중국 비즈니스센터(심천) 남궁영준 센터장 : +86-755-2692-77971 / pinoky14@kocca.kr
- 일본 비즈니스센터(동경) 황선혜 센터장 : +81-3-5363-4511 / hwang216@kocca.kr
- 인도네시아 비즈니스센터(자카르타) 김남걸 센터장 : +62-21-2256-2396 / girl94@kocca.kr
- 중동마케터(UAE 아부다비) 박상욱 과장 : +971-2-491-7227 / swpark@kocca.kr
- 베트남마케터(하노이) 홍정용 부장 : +84-39-226-4093 / hongiy@kocca.kr

발행인 김영준

발행처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라남도 나주시 교육길35(빛가람동 351)

전화 1566-1114

www.kocca.kr